

제1장

체제, 관계, 복잡성/복합성, 삼각관계

— 지역의 이론과 실천

System, Relations, Complexity/Compound, Triangular  
Relationship

— Theory and Practice of Region

신옥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이 논문에 관련된 관계사회학과 루만(Luhmann)의 문헌을 소개해 주신 한신갑, 이용욱, 김주형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한국의 학계가 이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탐구에 있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수준의 체제를 상정하고, 이와 대한 개념적 검토와 그를 통한 한국의 국가전략 모색을 위한 시론적 고찰을 그 목표로 한다. 이는 체제, 관계, 복잡성/복합성, 그리고 삼각관계에 대한 다양한 사회이론적 논의와 기존의 국제정치이론, 외교정책론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러한 논의는 우리로 하여금 설명이론과 규범이론, 그리고 비판이론의 결합 가능성을 검토하게끔 하고 있다. 관계에 대한 고찰은 또한 기존 국제정치학의 분석수준 내지는 존재론적 논쟁에 보완적인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제공한다. 즉 거시와 미시, 주체와 구조의 양분법 내지는 단순한 상호구성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하나의 예로 지역체제의 형성에 대한 개념적/경험적 검토, 그리고 이와 연관된 규범적 지향성과 전략적 모색의 논의를 통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실천적으로 본다면 이는 동아시아/동북아 지역체제를 한중일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세 국가가 공유하는 규칙을 생각해 보고 그와 관련된 한국의 역할을 가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대칭적 권력 구조에서 No. 3의 행위자가 사회적 체제의 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범과 전략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It is not clear how much attention Korean scholars have paid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region,' which is a frequently discussed subject these days. Starting from this reflection, this paper assumes the regional-level system in East or Northeast Asia, carries a conceptual review of it.

and attempts to deliberate Korea's national strategy through the review. The project tries to combine social theories dealing with the concepts of system, relations, complexity, and triangular relationship with the exist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foreign policy analyses. Theoretically speaking, this kind of work makes us to think about the possibility to connect explanatory theories to normative and critical theories. Consideration of 'relations' also provides us with the ground to complement existing level-of-analysis and ontological debat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other words, it helps us to overcome the dichotomy between micro and macro, or between agent and structure, and the simple logic of co-constitution. As an example, we can think about the ways in which we integrate conceptual/empirical analyses with normative orientation and strategic pursuit in the matter of regional system formation. Practically speaking, it means the inquiry of the East Asian/Northeast Asian regional system based on the triangular relationship among China, Japan, and Korea, the investigation of the rules that three countries can share, and the search for Korea's role on them. This connotes the pending question for No. 3 actor to effectively link norm and strategy in the process of social system building.

**KEYWORDS** 체제 system, 관계 relations, 복잡성 complexity, 복합성 compound, 삼각관계 triangular relationship, 지역 region

## I 서론

21세기 세계정치의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 중의 하나는 ‘아시아의 세기’라는 용어이다. 이는 ‘중국의 부상’이 거론되고, 미국 행정부가 아시아로의 ‘재균형’ 정책을 표방하면서 구체적인 학문적, 실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sup>1</sup> 분석수준의 문제에 있어서 이는 세계/국제 수준과 국가 수준 사이의 ‘지역’ 수준의 중요성 증대를 의미한다.<sup>2</sup> 따라서 이론적 논의에 있어서도 세계/국제정치와 개별 국가의 정치 사이에 놓여있는 지역정치의 문제가, 그리고 정책적 고려에 있어서도 글로벌 다자와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지역정책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환의 시기에 한국의 학계나 정책결정 집단이 이른바 ‘지역의 이론과 실천’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자기중심적인 이론의 전개와 적극적인 광역 아시아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과,<sup>3</sup> 민간수준의 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양자동맹에 치우치면서 아시아/태평양을 주된 협력의 장으로 삼고 있는 일본에 비해,<sup>4</sup> 우리나라

- 1 필니(Pilny)는 “지중해는 과거의 바다이고, 대서양은 현재의 바다이며, 태평양은 미래의 바다이다”라는 20세기 초반 헤이(Hay)의 말을 인용하면서, 21세기는 중국이 세계의 초강대국 역할을 맡는 복잡하고 다극화된 세기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카를 필니 2006, 5, 357). 마부바니(Mahbubani)도 서구의 부상이 세계를 전환시켰듯이 아시아의 부상도 유사하게 세계의 의미 있는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Mahbubani 2008, 1).
- 2 이용희는 자신의 저작에서 이를 ‘권역’이라는 용어로 묘사하고, 그 역사적 유형으로 기독교권, 유교권, 이슬람교권을 구분한 바 있다(이용희 1962, ch. 2).
- 3 대표적인 학문적 작업으로 자오팅양(2010), Yan(2011)을 볼 것. 근래의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이나 일대일로 정책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라의 학문적, 실천적 논의에서 뚜렷한 지역적 범주의 이론이나 정책의 윤곽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이러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수준의 체제를 상정하고, 이와 대한 개념적 검토와 그를 통한 한국의 국가전략 모색을 위한 시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이는 체제, 관계, 복잡성/복합성, 그리고 삼각관계에 대한 다양한 사회이론적 논의와 기존의 국제정치이론, 외교정책론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 II 체제와 관계

왜 다시 체제이론인가?<sup>4)</sup> 카플란(Kaplan)이 1968년 “체제이론과 정치과학”이라는 논문을 집필한 이후, 이 이론은 정치과정론과 국제정치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정작 카플란은 자신의 논문을 ‘체제이론’이란 이론이 아닌 ‘개념의 집합’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 진보적 학자들의 저작으로 강상중(2002), 와다 하루키(2004)를 볼 것. 2016년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5 먼저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체제와 체계의 혼용의 문제이다. 둘 다 ‘system’의 번역어임에도 불구하고 두 단어는 상대적으로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체제가 상대적으로 제도적, 규범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에 반해, 체계는 기능적, 설명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용례에서처럼 이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게 될 것이다.

(뇌과학자인) 애쉬비(Ashby)에 따르면, 하나의 체계는 그들이 어떠한 상호의존성을 갖는가와 상관 없이 선택된 혹은 추상화된 일련의 변수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정치적 체제이론은 통상적으로 '체계를 좀 더 제한된 의미에서 정의하고 있다. 하나의 체계는 그들 각각이 체계 내에서 최소한 다른 하나의 변수와 상호의존적인 변수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체계는 자신의 환경과 구분되고 있다. 체계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상호교환은 투입과 산출과 지칭된다. 조직과 체계의 특징적인 행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투입은 단계적 기능으로 불린다. ... 체계들은 모두 균형상태(equilibrium)를 갖고 있다. 균형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체제이론이 균형의 바람직하다거나 항상 균형이 존재한다고 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Kaplan 1968, 32).

카플란은 체제이론의 검증이 국제체제의 사례를 통해 잘 이행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체계분석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가치와 행동 혹은 가치와 특징적 행태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정한 형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회체계(social system)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주지하는 것처럼 국제정치학의 대표적 체제이론은 월츠(Waltz)의 신현실주의 이론인데, 이는 카플란이 언급한 체계의 거시적 구조를 다루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월츠는 국제정치를 설명할 수 있는 '개략적' 이론의 틀로서 연역적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서, 동질적이고 영속적인 존재로서 국가(단위)를 전제한 후, 이러한 국가들의 능력의 분포에 의한 구조를 상정하고, 이러한 구조가 국가의 행위를 규제한다는 체제이론을 제시하였

다.<sup>6</sup> 이에 비해서 영국학파의 불(Bull)은 둘 이상의 국가가 충분한 접촉을 갖고 서로가 다른 쪽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어느 정도는 그들의 하나의 부분으로 행동하게 될 경우에 국제체제가 형성된다고 보고, 다른 한편으로 한 집단의 국가가 공통의 이익이나 가치를 인식하여 그들이 서로 간에 공통의 규칙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통의 제도의 운영에 협력할 경우에는 국가 간의 사회체제, 즉 국제사회가 형성된다고 보았다.<sup>7</sup>

이 논문은 지역체제의 이론을 논의함에 있어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신현실주의 이론이 보여 주는 역사적 고찰의 상대적 부족에 대한 지적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는 아래와 같이 묘사되었다.

홉슨(Hobson)은 국제정치학의 기존 이론들이 역사물신주의와 변화단선주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서 역사물신주의는 물역사주의의 한 종류로서 현제가 자율적이고, 자연적이고, 자발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체계라고 생각하는 일련의 그릇된 가정이다. 현제가 자족적이고 영원하다는 가정 때문에 권력, 정체성, 사회적 배제, 규범 등이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변화의 과정으로 현제를 보지 못하는 사고체계이다. 반면 변화단선주의는 모든 국제체제가 동등하고 동형적이며, 역사적으로 물신화된 현재의 일정하고 규칙적인 속

6 Waltz(1979)를 참조할 것. 물질적 측면의 구조에 치중한다는 지적 이외에도 웬트(Wendt)는 구조적 현실주의의 이러한 설명에서 체계적 속성이 궁극적으로 단위 차원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Wendt(1987)를 볼 것.

7 Bull(1977)을 참조할 것. 국제사회론을 동아시아 지역정치에 적용한 연구로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2008)를 볼 것.

도에 따라 특징 지워진다고 상정한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현재의 국제체제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구성적 측면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Hobden and Hobson 2002, 전재성 2011, 41에서 재인용).

전재성은 신현실주의가 무정부상태를 국제체제의 기본적인 조직 원리로 제시하면서 다른 지역의 차별적 조직원리의 존재에 대한 고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3세계의 지역질서에서 복수의 조직원리가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양상에 대한 신현실주의의 무관심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제정치 현실을 조직원리로 추상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비서구의 현실이 하나의 조직원리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보편국제정치학으로 불리기는 부족한 점이 있다(전재성, 2011, 46).<sup>8</sup>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사회적, 역사적, 그리고 비교적 측면을 포괄하면서도 분석적인 명료성을 유지하는 대안적인 틀을 모색하는 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연구는 그를 체계와 관계에 대한 사회이론에서 찾고자 한다. 고전적 체계이론가인 파슨스(Parsons)

8 이른바 '사대교린'의 틀은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동북아에서 복수의 조직원리가 존재하였던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조선에게 있어 사대는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는 중국과의 관계의 틀이었고, 교린은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일본과의 관계의 틀이었던 것이다. 강동국(2015)을 참조할 것.



는 개별 단위의 행위(unit action)는 전적으로 실재의 창발적 성격(emergent property)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보면서, 차별적인 조건에 따른 행위 체계의 유형을 구분한 바 있다. 즉 수단을 지칭하는 ‘도구적’, 목적 달성을 지칭하는 ‘충족적’이라는 행위 요소로 구분되는 수평축과, 외부 관련성에 해당하는 ‘외재적’, 내부의 구조적 사실에 해당하는 ‘내재적’인 체계의 특성으로 구분되는 수직축에 따른 네 유형이 제시되는 것이다. 여기서 파슨스는 도구적/외재적 결합의 형태를 ‘적응’, 충족적/외재적 결합의 형태를 ‘목표 달성’, 도구적/내재적 결합의 형태를 ‘잠재적 유형의 유지’, 그리고 마지막의 충족적/내재적 결합 형태를 ‘통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sup>9</sup> 이러한 구분은 지역체제의 사례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sup>10</sup>

이는 카플란이 언급한 체제와 환경의 구분과 관련되고 있다. 루만은 ‘체계는 바로 자신과 환경과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는 명제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와 같은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는 특정한 체계의 분화(differentiation) 문제는 루만 체계이론의 핵심적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sup>11</sup> 따라서 우리가 단순

9 루만(2014) 제1장을 볼 것. 루만은 구조기능주의자로 지칭되는 파슨스의 이론이 상당히 역사적이고 진화적인 개방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사회’를 다루는 파슨스의 저서 중 하나는 그 부제가 ‘진화적, 비교적 시각’으로 되어 있으며, 구성요소의 상호관계를 통한 사회 형성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Parsons(1966)를 볼 것.

10 ‘지역’과 ‘체계’를 연결한 초기의 국제정치학 연구로 Russett(1967)을 볼 것. 하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이를 국제연합에서의 투표와 통상의 유형 분석을 위한 양적 연구의 틀로 사용하였다.

11 루만(2014) 제2장을 참조할 것. 일부 학자들은 루만의 ‘세계사회’의 논의가 국제정치이론에 갖는 의미를 탐구하였다. Albert and Hikermeier(2014)를 볼 것.

한 지리적 구분을 넘어서서 아시아/태평양, 혹은 극동과 구별되는 동아시아/동북아 지역체제의 특성을 논의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 경우 미국이나 러시아의 정책 변수는 체제적 요인이라기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체제이론이 다루는 균형 내지는 안정성(stability)의 개념에 대한 것이다. 루만은 기존의 체계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고도의 통합이 갈등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오히려 느슨한 결합에 기초하고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작용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때 체제가 안정성을 가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sup>12</sup> 조금 다른 맥락에서 국제정치학자인 저비스(Jervis)는 체제적 영향(system effects)을 다루는 자신의 저서에서 기존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안정성 개념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나의 체제의 다른 체제로의 이행의 상대적 용이함’이 안정성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다(Jervis 1997, 97). 이에 따르면 개디스(Gaddis)가 말하는 ‘긴 평화’를 가능케 한 글로벌 냉전체제나 칼더(Calder)가 서술하는 정치경제적 협력체로서 아시아/태평양의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오히려 안정적이지 아니라 경직된 체제였다고 볼 수도 있다(Gaddis 1987; Calder 2004).

루만이 사회체제의 분화와 작동에 있어 강조하는 요소는 ‘연체나 동일하고 또한 연결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작동’ 즉 ‘소통

12 이에 따르면 합의와 갈등,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것이 국제체제의 통상적인 모습이며, 이는 ‘연성 다자주의’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루만 2014, 457).

(communication)’의 존재이다(루만 2014, 102).<sup>13</sup> 이러한 부분은 사회적 구조의 ‘과정적 시각’을 강조하는 이른바 관계사회학 이론가들의 주장과 연결된다. 애벗(Abbott)은 ‘어떠한 경우에 사회적 존재가 등장하거나 소멸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회적 존재는 사회적 행위자가 특정한 방식에 의해 사회적 경계에 함께 연결될 때 생겨난다’고 보고 있다(Abbott 1995, 859-860).<sup>14</sup> 즉 그는 ‘사물의 경계(boundaries of things)’가 아닌 ‘경계의 실재성(things of boundaries)’에 대한 탐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크라토크빌(Kratochwil)은 이러한 방식으로 유럽국가체제의 등장과 현대 세계체제의 특성을 설명한다.<sup>15</sup> 그 역시 ‘경계’의 개념을 중시하면서, 국가체제에서 갈등 관리의 두 가지 기술로서 경계의 위치 이동과 경계의 기능 조정의 전략을 들고 있다. 이는 체제와 환경의 지속적인 조정에 대한 루만의 문제의식과 연결되는데, 크라토크빌은 그것에 의해 국가들이 영토적 주권의 배타적인 속성을 변형시키고, 그에 따라 그들의 관계를 관리하는 ‘다양한 형태들’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관계의 존재론적 의미와 체계의 창발적 속성에 대

- 13 루만의 ‘매체’의 역할과 ‘기대 개념을 통한 구조’의 논의는 이용희의 저작에서 ‘진짜’와 그를 통한 ‘의미권’의 형성이라는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용희(1962)를 참조할 것.
- 14 사회적 구조에 관한 초기 논의를 위해서는 Wellman and Berkowitz(1988)를 참조할 것. 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학에 적용한 대표적 작업으로는 Kahler(2009)를 볼 것.
- 15 Kratochwil(1986)을 볼 것. 흡슨의 역사사회학적 연구도 유사한 맥락에서 ‘구성적’ 국가와 세계정치에 대한 구조화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Hobson(2000)을 참조할 것.

한 지적은 이머베이어(Emirbayer)의 저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는 “관계적인 연결이 없는 요소, 혹은 요소가 없는 관계란 없다”라는 루만의 말을 인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교류적 접근(transactional approach)의 특징은 이 접근법이 조건, 혹은 단위 사이의 관계를 그 속성에 있어 부동의 개체 사이의 정적 연계가 아닌 현저하게 역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Emirbayer 1997, 288-289).

그는 이 교류적 관점의 의미는 ‘거시’에서 ‘미시’로의 연결선상에 있어 차별적이고 독자적인 탐구 수준의 재개념화를 유도한다는 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Emirbayer 1997, 294).

잭슨(Jackson)과 넥슨(Nexon)은 자신들의 논문에서 이머베이어의 사회적 존재에 대한 실질주의(substantialism)와 관계주의(relationalism)의 두 입장을 소개하고, 양자가 모두 의미는 있으나 세계정치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후자의 과정과 관계의 이론이 좀 더 적실성을 갖는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Jackson and Nexon 1999). 관계와 과정에 대한 강조는 또한 일부 중국학자들의 저작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진야칭의 ‘관계적 거버넌스(relational governance)’에 대한 논의가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또한 한신갑은 관계사회학의 이론들을 남북한 관계에 적용하

16 진야칭은 관계적 거버넌스를 “구성원들이 사회적 규범과 인간적인 도덕성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상호신뢰를 갖고 상호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공동체 내의 복잡한 관계들을 관리

려는 노력을 보여 준다(한신갑 2013). 이러한 관계이론의 원용은 그동안 주체-구조의 문제에 대해 양자 사이의 상호구성이라는 다소 막연한 답이 주어졌던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담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즉 ‘관계의 형성과 전환’이라는 매개를 통해 주체성의 여지와 실천 가능성의 탐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웬트의 구성주의가 다시 단위 수준에서는 구조주의로 환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와이트(Wight)는 상대적으로 주체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Wight 2006). 그는 또한 현재의 국제정치이론의 분열상을 검토하면서 아래와 같이 실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통합적 다원주의의 궁극적인 검증은 실천에 있다. 하지만 이 실천은 우리가 그것의 문제, 가능성, 그리고 현실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각을 갖지 않는다면 시작할 수도 없는 성격의 것이다. 복잡하게 조직화된 체제에 대한 정교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의 연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란 없다. 이 상황은 분명 ‘어떤 것도 좋아(anything goes)’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시도해 보기 전에는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라든지, 언제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사전

하는 사회정치적인 협약들을 협의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Qin 2011, 133). 문제는 유교에 바탕을 둔 이와 같은 규범적 견해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중심의 전통적 세계질서관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에 알려주는 규칙이란 없는 것이다(Wight 2016).<sup>17</sup>

체르노프(Chernoff)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메타이론에 대한 논쟁이 갖는 실천적인 의미와,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외교 정책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겠다.<sup>18</sup>

### III 복잡성/복합성

여기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관계적 특성을 어떻게 분석적으로 설명해 낼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이론적 논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의 영역과 연결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는 복잡계 이론의 활용과 ‘복잡’과 ‘복합’의 구별을 통해서 시도될 것이다. 복잡성의 개념과 복잡계 이론은 체제이론과 마찬가지로 자연과학의 논의에서 나온 것이다. 홀랜드(Holland)는 복잡성에 대한 자신의 개론적 문헌을 “한때 많은 상호 연결된 부분을 가진 물체를 묘사하는 통상적인 명사였던 복잡성은 이제 많은 분과를 가진 하나의 과학적 영역을 지칭하게 되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17 규범적 논의가 정책적 의미와 설득력을 가지려면 결국 그러한 방향으로의 실천이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필요한데, 이러한 점에서 설명이론의 기여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 체르노프는 실제적인 정책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각 이론이 갖는 국제관계의 원리와 철학적 주장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며, 실증주의와 행태주의가 그러하듯이 탈실증주의, 구성주의, 성찰주의, 그리고 탈근대 이론들 역시 정책결정자들에게 의미 있는 지표 제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Chernoff(2005), Chernoff(2007)를 참조할 것.

(Holland 2014, 1). 민병원은 메타이론으로서 약점에도 불구하고 복잡계 이론이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보완적 틀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

기존의 냉전적 사고방식과 결정주의적 패러다임이 설명해 낼 수 없는 격변의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설명이 필요인데, 복잡계이론은 이러한 취지에 잘 부합되는 훌륭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정치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일어나는 비선형 관계들, 그리고 상식을 초월하는 복잡한 변화와 예측을 불허하는 격변의 모습들이야말로 복잡계이론에서 다루는 주요한 관심 대상이기 때문이다(민병원 2005, 35).<sup>19</sup>

홀랜드는 복잡계의 유형을 복잡물질체계(complex physical system)와 복잡적응체계(complex adaptive system)로 구분했는데,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지역체제는 후자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홀랜드는 복잡적응체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복잡적응체계에서 요소들은 적응적인 주체(adaptive agents)들이며, 주체들이 적응을 하게 되면 요소들 자체가 변화하게 된다. 그와 같은 체계의 분석은 훨씬 더 어려워진다. 특히 적응적인 주체들 사이의 변화하는 상호작용은 단순하게 부가적인 것은 아닌 것이다. 이

19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웬트의 양자이론에 의한 새로운 존재론의 논의도 이와 같은 보완적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Wendt(2015)를 참조할 것.

러한 비선형성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편미분방정식의 사용을 배제시킨다. 사회과학과 같은 복잡적응체제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analyzing)은 물론이고 기술(describing)의 표준적인 도구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배가되는 것이다(Holland 2014, 1).

루만은 환경은 언제나 체계보다 복잡하고, 체계 내부에서도 복잡성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루만 2014, 217). 따라서 연구자는 환경과 체제를 구별하고 체계 내부의 복잡성을 관리, 감축하는 방식에 의해 좀 더 정교한 분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20</sup>

홀랜드는 또한 ‘complex’와 ‘complicated’를 구분하는 것의 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Holland 2014, 3). 하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은 ‘complex’와 ‘compound’를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상배는 ‘complex’를 ‘복잡’이 아닌 ‘복합’으로 번역하면서 이를 ‘두 가지 이상이 또는 두 가지 이상을 하나로 합침’이라고 정의하였다(김상배 2012, 352). 그렇지만 이는 ‘complex’ 보

20 비언(Byrne)과 캘러건(Callaghan)은 제한된 복잡성(restricted complexity)은 일반적 복잡성에 비해 학제성(inter-disciplinarity)이 유지되면서도 공식화와 모델링에 좀 더 유리한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Byrne and Callaghan(2013, ch. 2)을 볼 것. 이론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중범위 이론(medium-range theory)이나 유형이론(typological theory)의 구축 노력도 이와 같은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경우 인과성(causality)의 발견보다는 개연성(plausibility)의 추적이 목표가 되며, 이를 위해 비교사례연구나 과정추적(process tracing)과 같은 방법론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George and Bennett(2005), Byrne and Callaghan(2013, ch. 9)을 볼 것. 인과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Kurki(2008)를 참조할 것.



다는 ‘compound’의 뜻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complex’를 ‘복잡’으로, 그리고 ‘compound’를 ‘복합’으로 번역하고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이럴 경우 ‘복잡성’은 현상 자체의 복잡함을, 그리고 ‘복합성’은 적응적 주체의 역할이 더해지는 경우, 즉 ‘복합화’의 결과물을 뜻하게 된다. 이 경우 관계는 상대적으로 복잡성이, 그리고 규칙과 규범은 복잡성과 복합성 모두가, 그리고 전략이나 정책은 복합성이 주로 작동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sup>21</sup> 즉 ‘복잡’과 ‘복합’의 개념적 구분을 통해 설명이론과 규범이론의 연결과 분리가 동시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복잡성과 복합성의 구별의 구체적인 예로 우리는 적응적 주체가 후자의 방식에 의해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위 차원의 복합화를 통해 지역 차원의 체제적 안정성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데,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문제 있는 주권’(problematic sovereignty)에서 ‘창의적 변용’(creative deviation)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즉 양안관계에서 일국양제가 아닌 일국양체론, 평화국가와 보통국가의 성격이 혼합된 수정된 보통국가로서의 일본, 그리고 국가연합의 형태로서의 한반도 평화체제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루만의 지적대로 느슨한 결합에 의한 단위 차원의 안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동아시아/동북아 지역체제에서 저비스가 이야기한 안정적 전환을 동시에 모색하는 것이다(Shin 2016). 또 하나의 방법은 전략의 복합성, 즉 복합적 전략(compound strategy)을 구상

21 이 경우 주 5에서 언급된 것처럼 복잡성은 ‘체계’와, 복합성은 ‘체제’와 상대적인 친화력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육회는 동아시아에서 기존의 동맹의 전략과 새로운 지역의 전략을 복합화 하는 것에서 한국 외교정책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신육회 2017).

#### IV 삼각관계

분석적인 측면에서 복잡성을 감축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적응적 주체의 수를 줄여 보는 것인데, ‘가장 단순한 복잡계’라고 할 수 있는 삼각관계의 체제를 상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sup>22</sup> 캐플로우(Caplow)는 삼각관계에 대한 그의 고전적인 연구에서 힘의 분배에 따른 A, B, C 사이의 여섯 가지의 삼각관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Caplow 1956).

첫 번째: A, B, C가 모두 동등한 힘을 보유한 경우

두 번째: A가 (동등한 힘을 가진) B, C 보다 힘이 강하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은 경우

세 번째: B와 C의 힘이 동등하고 A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

네 번째: A의 힘이 (동등한 힘을 가진) B와 C의 힘을 합친 것보다 훨씬 강한 경우

다섯 번째: B와 C의 힘이 다르기는 하지만 합쳐지면 A보다 강한 경우

여섯 번째: A, B, C 힘이 모두 다르지만 A의 힘이 B와 C의 힘의 합

22 즉 동아시아/동북아의 전략적 환경, 지역체제, 한중일 삼각관계의 순서로 분석을 정교하게 해 가는 것이다.

## 보다 강한 경우

저자는 서로가 상대 행위자를 통제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각각의 양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삼각관계의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라 힘이 강한 행위자보다 힘이 약한 행위자가 상대에게 선호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sup>23</sup>

디트머(Dittmer)는 이와 같은 삼각관계의 틀을 국제정치에 적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유형을 상정하였다(Dittmer 1981).

첫 번째: 세 행위자가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속성을 갖는 ‘삼자동거’의 모델

두 번째: 한 행위자가 다른 두 행위자와 각각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다른 두 행위자는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남만적 삼각관계’의 모델

세 번째: 가장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두 행위자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다른 한 행위자는 두 행위자와 모두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안정적 결혼’의 모델

23 각 유형의 검토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상대적인 약자에게 유리한 선택이 존재함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두 번째 유형에서 상대적 약자인 B와 C는 협력을 통해 A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유형에서 가장 약한 행위자인 A와 C는 다른 두 행위자의 구애를 받을 수 있으며, 세 번째 유형의 A와 다섯 번째 유형의 C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네 번째와 여섯 번째 유형에서도 약자인 B와 C는 최강자인 A에 편승하는 선택이 가능하다.

저자는 이와 같은 분류를 바탕으로 세 행위자가 벌이는 일종의 ‘교환게임’의 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추(pivot)의 역할을 하는 행위자가 주요 분석 대상이 된다. 디트머는 낭만적 삼각관계에서의 중추적 위치가 가능한 가장 유리한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이는 다른 두 행위자로부터의 호의의 존재와 적의의 부재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Dittmer 1981, 510).<sup>24</sup>

저비스의 저작도 삼각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국가 사이의 다양한 관계 유형을 보여 주고 있다(Jervis 1997, ch. 5). 삼각관계가 갖는 세 측면연계(lateral linkage), 즉 양자관계의 상호의존성과 더불어 강조되는 것 또한 힘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지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행위자의 존재 가능성이다.<sup>25</sup> 즉 삼각관계는 캐플로우가 이야기한 대로 초기의 권력분포에 영향을 받지만, 관계의 양상은 디트머나 저비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각 국가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24 하지만 중추 역할을 하는 행위자는 다른 두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대립이 지나치면 낭만적 삼각관계가 안정된 결혼 관계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대립이 느슨해지면 중추 역할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25 상대적으로 볼 때 약소국보다는 강대국에 의한 중추 역할이 좀 더 자주 관찰되는 것이 사실이다. 중추적 행위자는 다른 두 행위자의 대립을 기대하게 되는데, 강대국의 경우는 자신의 힘을 통해서, 약소국의 경우는 자신의 외교적 유연성을 통해서 이를 관찰하려고 한다. 조직사회학에서도 A라는 행위자가 B에 대한 중추적 연계를 C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완화시키는 2단계(two-step) 전략의 관찰을 통해 기존의 자원의존적 접근(resource-dependence approach)에 대한 보완을 시도하였다. Gargiulo(1993)를 참조할 것. 그레노베타(Granovetter)는 일찍이 자신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연계(weak ties)가 갖는 응집력이 집단 사이의 관계에 주는 의미를 다룬 바 있다. Granovetter(1973)를 볼 것.

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앞서 검토된 사회적 구조에 대한 관계사회학 이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이 경우에는 물리력에 있어서의 ‘중견국(middle power)’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중간에 위치하는 행위자, 즉 ‘중간국(power in the middle)’의 역할이 중시되는 것이다.<sup>26</sup> 이는 버트(Burt)가 제 3자의 ‘매개(brokage)’에 의해서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이 메워지면서 다른 두 행위자가 연결된다고 보는 초기 네트워크 논의와 유사하다(Burt 1992). 애봇은 자신의 분석에서 의도적인 주체성의 문제로서 이러한 결합(connecting up)의 사례들을 들고 있는데, 이른바 ‘이음(yoking)’이 이에 해당한다. 애봇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음은 각각의 편이 동일한 존재의 ‘내부’에 있다고 정의 되게끔 둘 혹은 그 이상의 기존 경계(proto-boundary)들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적 공간이 비어있거나, 혹은 구성되지 않았을 때, 이음은 경계들 사이의 진보적인 연결을 뜻하게 된다(Abbott 1995, 871-872).

국제관계에서 이와 같은 중재자의 역할은 두 강대국 사이의 ‘양 다리 걸치기(hedging)’와는 다른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쿠익(Kuik)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대응 양상을 분석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26 이 논의는 정치심리학에서 역할구상(role conception)의 문제와 연결된다. Holsti(1970)를 참조할 것.

중국에 대해 순수한 형태의 균형 혹은 편승을 채택하는 국가는 별로 없다는 점에서, 정책적 선택의 한 영역으로서 ‘양 다리 걸치기’를 개념화하는 것은 국가 전략의 시간적인 연속성과 변화를 관찰하는 데 있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정책분석가들로 하여금 연속적인 범주에서의 수평적 이동의 가능성, 방향, 그리고 조건을 생각해 봄으로써 21세기의 전환하는 권력구조 속에서의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유용한 지침(pointer)을 갖게 해 준다(Kuik 2008, 181).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의 유지와는 달리 삼각관계에서의 중추, 매개, 혹은 이음의 역할은 국가 행위자 사이의 사회 형성이라는, 루만이 이야기 하는 소통을 통한 이른바 체제의 ‘존재론적 형이상학’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Albert and Hilkermeier 2014, ch. 4). 따라서 동아시아/동북아시아 지역체제의 핵심적 삼각관계인 한중일 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모색도 전략적 측면과 더불어 이와 같은 규범적 맥락에서의 고려가 함께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sup>27</sup>

이는 역사적으로 보아 위계적 성격을 가졌던 중국의 천하질서와 일본의 제국질서, 그리고 형식적인 평등성과 실제적인 위계성을 특징으로 하는 냉전기 국제체제의 성격과는 다른 사회적 체제

27 이와 같은 전략과 규범 혼용의 역사적 예로 유길준이 제시한 조선의 ‘중립론’을 들 수 있을 것이다(유길준 1971, 326). 이는 청이 주도하여 조선을 중립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외교를 주도했던 김윤식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로서의 지역체제의 구성에 있어 역할 모색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관건은 ‘북한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체제 형성과 동북아 지역체제의 형성이 병행되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의 ‘이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 V 결론

‘지역의 이론과 실천’의 모색을 위한 체제, 관계, 그리고 복잡성과 복잡성 논의는 우리로 하여금 설명이론과 규범이론, 그리고 비판이론의 결합 가능성을 검토하게끔 하고 있다. 김주형의 루만 이론에 대한 평가는 이와 같은 측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비판과 규범성에 대한 집중은 루만이 계몽적 합리주의의 전통과 관련된 이론뿐만 아니라 좀 더 통상적인 탈근대 혹은 탈구조이론의 좀 더 통상적인 변형들과도 구별되는 비판적 분석의 대안적 패러다임을 발전시키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유용하다. 만약 그러하다면 체계이론의 잠재력과 문제들도 비교적 시각에서 결실 있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체계이론을 현재의 이론적 지평에서 좀 더 두드러진 다른 두 이론적 전통, 즉 자유주의적 보편주의와 탈구조주의와의 대조를 의미한다(Kim 2015, 356-357).

국제사회론과의 비교를 통한 브라운(Brown)의 루만의 체계 이론 평가도 아래와 같이 유사한 주장을 제시한다.

함께 고려된다면 이러한 점들은 그 안에서 국제사회가 통상적으로 위치하는 규범적이거나 경험적인 틀이 다소 불안정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러한 점이 '사회'의 개념과 '체계'의 개념 모두를 재검토하는 길을 열어 주게 되고, (루만의) 체계이론이 이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Brown 2014, 71).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관계에 대한 고찰은 기존 국제정치학의 분석수준 내지는 존재론적 논쟁에 보완적인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제공한다. 즉 미시와 거시, 주체와 구조의 양분법 내지는 단순한 상호구성주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하나의 예로 지역체제의 형성과 전환에 대한 개념적/경험적 검토, 그리고 이와 연관된 규범적 지향성과 전략적 모색의 논의를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는 동아시아/동북아 지역체제를 한중일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세 국가가 공유하는 규칙을 생각해 보고 그와 관련된 한국의 정책을 가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도는 비대칭적 권력 구조에서 No. 3의 행위자가 사회적 체제의 구성 과정을 통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범과 전략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동국. 2015. “조선시대 국제정치사상과 당대 한반도: 1876-1910년의 병용과 그 사상적 유산을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 제4회 브라운백 세미나. 서울.
- 강상중. 2002. 이경덕 역,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뿌리와 이파리.
- 김상배. 2012. “복합세계정치론의 이해: 전략, 원리, 질서.” 하영선, 김상배 편. 『복합세계정치론: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한울.
- 루만, 니클라스. 2014. 디르크 베커 편·윤재왕 역, 『체계이론 입문』. 서울: 새물결.
- 민병원. 2005. 『복잡계로 풀어내는 국제정치』. 삼성경제연구소.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2008. 『세계정치 10: 국제사회론과 동아시아』. 논형.
- 신옥희. 2017.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중국, 일본과 한반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와다 하루키. 2004. 이원덕 역,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신지역주의선언』. 일조각.
- 이용희. 1962. 『일반국제정치학(상)』. 박영사.
- 자오팅양. 2010. 노승현 역, 『천하체계: 21세기 중국의 세계인식』. 길.
- 전재성. 2011.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EAI.
- 필니, 카를. 2006. 이미옥 역, 『아시아의 세기』. 에코리브르.
- 한신갑. 2013. 『막힌 길 돌아서 가기: 남북관계의 네트워크 분석』.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Abbott, Andrew. 1995. “Things of Boundaries.” *Social Research* 62, No. 4(Winter), 857-882.
- Albert, Mathias and Lene Hilkermeier(eds.). 2014. *Observing International Relations: Niklas Luhmann and World Politics*. New York: Routledge.
- Brown, Chris. 2014. “The ‘English School’ and World Society,” in Mathias Albert and Lene Hilkermeier(eds.). *Observing International Relations: Niklas Luhmann and World Politics*. New York: Routledge.
- Burt, Ronald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Byrne, David and Gillian Callaghan. 2013. *Complexity Theory and the Social Sciences: The State of Art*. New York: Routledge.
- Calder, Kent. 2004. “Securing Security through Prosperity: The San Francisco System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Pacific Review* 17, No. 1(March), 135-157.
- Caplow, Theodore. 1956. “A Theory of Coalitions in the Tria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 No. 4(August), 489-493.
- Chernoff, Fred. 2005. *The Power of International Theory: Reforging the Link to Foreign Policy-Making through Scientific Inquiry*. New York: Routledge.

- \_\_\_\_\_. 2007. *Theory and Meta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Concepts and Contending Account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Dittmer, Lowell. 1981.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33, No. 4(July), 485-515.
- Emirbayer, Mustafa. 1997. "Manifesto for a Relational 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 No. 2(September), 281-317.
- Gaddis, John Lewis. 1987.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argiulo, Martin. 1993. "Two-step Leverage: Managing Constraint in Organization Politic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8, No. 1(March), 1-19.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Social Sciences*. Mass: MIT Press.
- Granovetter, Mark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No. 6(May), 1360-1380.
- Hobden, Stephan and John M. Hobson(eds.). 2002. *Historical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bson, John M.. 2000. *The Stat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lland, John H.. 2014. *Complexity: A Very Short Introduc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Holsti, K. J.. 1970. "National Role Concep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4, No. 3(September), 233-309.
- Jackson, Patrick Thaddeus and Daniel H. Nexon. 1999. "Relations before States: Substance, Process and the Study of World Politic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5, No. 3(September), 291-332.
- Jervis, Robert. 1997. *System Effects: Complexity in Political and Social Lif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hler, Miles (ed.). 2009.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Kaplan, Morton A.. 1968. "System Theory and Political Science." *Social Research* 35, No. 1(April), 30-47.
- Kim, Joohyoung. 2014. "The Social and the Political in Luhmann."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14, No. 4(November), 355-376.
- Kratochwil, Friedrich. 1986. "Of Systems, Boundaries, and Territoriality: An Inquiry into the Formation of the State System." *World Politics* 39, No. 1(October), 27-52.
- Kuik, Cheng-Chwee. 2008. "The Essence of Hedging: Malaysia and Singapore's Response to a Rising Chin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30, No. 2

- (August), 159-185.
- Kurki, Milja. 2008. *Caus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claiming Causal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hbubani, Kishore. 2008. *The New Asian Hemisphere: The Irresistible Shift of Global Power to the East*. New York: PublicAffairs.
- Parsons, Talcott. 1966. *Societies: Evolutionary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Inc.
- Qin, Yaqing. 2011. "Rule, Rules, and Relations: Towards a Synthetic Approach to Governance."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4, 117-145.
- Russett, Bruce M.. 1967. *International Regions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A Study of Political Ecology*. Chicago: Rand McNally & Company.
- Shin, Wookhee. 2016. "Second Image Reconsidered: Quest for Unit Complexity in Northeast Asia."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43, No. 2(December), 63-73.
- Waltz, Kenneth Neal.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Mass: Addison-Wesley.
- Wellman Barry and S. D. Berkowitz(eds.). 1988. *Social Structures: A Network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ndt, Alexander E.. 1987.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 No. 3(July), 335-370.
- \_\_\_\_\_. 2015. *Quantum Mind and Social Science: Unifying Physical and Social Ont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ght, Colin. 2006. *Agents, Structur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s as Ont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16. "Pluralism and Fragment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rospects, Problems and Proposals." The Hanyang and Routledge International Studies Workshops("IR Theory and Practice in Asia: Where Are We and Where Are We Headed?"). Seoul.
- Yan, Xuetong. 2011. *Ancient Chinese Thought, Modern Chinese Powe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필자 소개

신옥희 Shin, Wookhee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미국 예일대학교 정치학 박사

논저 *Dynamics of Parton-Client State Relations*, 『순응과 저항을 넘어서』,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

이메일 [shinir@snu.ac.kr](mailto:shinir@snu.ac.kr)